한국고전연구 50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0/219~245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0.50.219

의사 몽유록 관점에서 본 〈주생전〉 연구

-배도와 선화의 형상에 반영된 주생의 욕망-

조홍윤*

<차 례>

1. 서론
2. 억압된 현실의 욕망으로 주조된 배도와 선화의 형상
3. 욕망의 충돌로 인한 내면 갈등의 비극적 형상화
4. 결론

〈국문초록〉

<주생전>은 조선 후기의 문학사적 변화를 대표하는 고소설 작품으로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작품 내외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히 엇갈린 견해들이 도출되어 왔다. 이에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한 선행연구자를 통해 '현실성이 강화된 전기소설'로서 <주생전>의 서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도록 할 '의사 몽유록' 개념이 제안된 바 있다. 본고는 그러한 '의사 몽유록'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주생전>의 서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서사 속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과 호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배도·선화와의 만남도 모두 현실에서 억압된 주생의 욕망이 꿈의 환상을 통해 투사된 것으로 보고, 거기 투사된 주생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은 몽유 주체인 주생이 지닌 '인정의 욕망', 입신양명을 위한 '배경에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이며, 구체적으로 배도와 선화의 형상을 통해 그와 같은 욕망이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배도는 주생의 재능과 인품을 긍정 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망이 반영된 인물이며, 선화는 주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입신양명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배경에의 욕망이 반영되어 주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욕망은 인접 관계에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Gör.)

www.kci.go.kr

있으면서도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에 주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욕망의 갈등에 의해,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화의 관계가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주생전>의 서사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디 꿈의 서사란 그 나름으로 일정한 논리를 지니면서도 완전히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보일 수는 없다. 이에 <주생전>의 서사는 논리적 파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논리의 빈틈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천차만별의 해석이 제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 몽유록적 측면에서 <주생전>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일목요연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의사 몽유록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일체의 서사를 주생의 욕망에 입각하여 재조명한 첫 성과로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주생전, 의사 몽유록, 꿈, 환상, 욕망

1. 서론

<주생전>은 조선 후기 소설의 변화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이 작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그 결과를 수렴하여 보면 공통적으로 전대의 소설에 비하여 현실성이 강화된 양상을 지적하면서도, 연구자에 따라 창작시기로부터 작가[1], 인물 성격 및 작품 내용의 해석, 문학사적 평가 등 작품 전반에 대한

1) 문선규는 작품 말미에 1593년인 癸巳年에 주생과 작가가 만났다는 기록을 근거로, 권필의 생몰년도를 고려하여 계사년부터 1611년 사이로 창작 시기를 추정하였다. 이후 해당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던 박희병, 소인호 등에 의하여 계사년 창작설이 주장되었다(박희병,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0~21쪽; 소인호, <주생전> 이본의 존재 양태와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1, 한국고소설학회, 2001, 187~189쪽). 그러나 정민은 명군 소속 인물과 권필의 실재 교유 기록을 근거로,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정유재란 때에 조선에 파병된 명군이 철수할 즈음인 1600년 전후로 보았다(정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작품 성격」, 『한양어문연구』 9, 한양어문학회, 1991, 87~94쪽). 또한 간호윤, 엄태식은 "權汝章

www.kci.go.kr

이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2] 그와 같이 엇갈린 견해들이 양산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박일용은 <주생전>이 지닌 전기소설로서의 정체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사실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경향에서 원인을 찾는다. 개성에서 주생을 만난 작가가 그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한다는 후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작품에 제시된 주생의 체험을 '사실'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모순되게도 대개의 연구자들이 <주생전>을 '전기소설'로 이해하는 상황, 그처럼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불일치된 시각이 작품의 서사에 대한 일목요연한 분석을 저해하여 천차만별의 해석을 낳고 있다 본 것이다.[3]

이에 그는 이전 시기의 소설에 비하여 매우 현실성이 강화되어 있으면서도 전기소설의 정체를 계승하고 있는 <주생전> 특유의 서사를 조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의사(擬似) 몽유록 구조'를 제시하였다. 의사 몽유록 구조란 <주생전>의 서사 공간 중 '전당(錢塘)'과 '호주(湖洲)'에서 이루어지는 배도·선화와의 결연 서사를 주생의 '백일몽적 환상', 즉 '꿈의 서사'에 비견하여 보고, 그 앞뒤로 배치된 전당으로의 이동 이전과 조선 파병 이후의 서사를 '현실의 서사'로, 개성에서 주생과 작가가 만나 이야기를

記"라는 기록이 북한본에서만 확인되며 그 외 이본의 후지에는 "癸巳仲夏無言子傳"라 기록되었던 것을 볼 때 '無言子'라는 호를 사용한 바 있는 권필의 조카 권칙이 <주생전>의 작가일 것이며, 권칙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17세기 중반 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간호윤, 「주생전·위생전 연구」, 『쥬싱뎐 위싱젼의 자료와 해석』, 박이정, 2008, 66쪽;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4~88쪽).

2) <주생전>의 인물 및 내용, 문학사적 평가에 대한 여러 이견들에 대해서는 신재홍, 「주생전 연구사」, 우쾌재 교수 화갑논총 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01~112쪽; 박일용, 「<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32쪽을 참조하길 바라며,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가며 해당 선행 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40~143쪽.

www.kci.go.kr

전하는 대목을 완전한 액자 밖의 서사로 보는 것이다. 이로써 <주생전>은 액자 안의 서사가 의사 몽유록 구조를 이룸으로써 이중적 액자 구조를 이루게 된다.[4]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몽환적인 서사 공간으로 지적되어 왔으며[5] 주인공 주생 자신에 의해서도 '취향(醉鄕)'으로 일컬어지는 전당의 성격이다. 악양(岳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든 주생이 하룻밤 만에 수천 리를 뛰어넘는 비현실적 공간 이동을 통해 전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에서도 그러하거니와[6], 그곳에서 배도·선화와 비현실적인 만남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도 전당이 지닌 비현실적·환상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에 <주생전>은 현실적 인물과 공간을 설정하여 현실의 사건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비현실적 공간이동을 통하여 기존 전기소설의 환상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몽유록의 관점에서 <주생전>을 볼 때에는 그 서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준거도 분명해진다.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과 호주를 배경으로 그려지는 주생의 서사는, 곧 몽유 주체인 주생의 환상에 해당하며, 주생의 환상은 곧 현실 속에서는 이루지 못할 주생의 내밀한 욕망이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당과 호주를 배경으로 한 배도와 선화

4) 박일용(2013), 앞의 논문, 141~150쪽.

5) 정민(1991), 앞의 논문, 81~126쪽; 윤경희, 「주생전의 문체론적 접근」,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23~159; 윤승준, 「취향과 현실 일탈의 꿈- <주생전>의 문학적 감염 장치」, 『동양학』 3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1, 103~123 등이 있다.

6) 임형택, 신태수 등은 하룻밤 사이에 악양에서 전당까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중국 지리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것이라 보았다(임형택, 「전기소설의 애정 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4쪽; 신태수,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25~28쪽). 그러나 주생 스스로 전당을 취향으로 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공간 이동을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으로의 비현실적 진입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적 설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www.kci.go.kr

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단순히 주생이 지닌 애욕의 향방을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억압된 주생의 내적 욕망이 무엇이기에 배도와 선화를 욕망의 대상으로써 그의 백일몽에 등장시켰는가, 그러한 주생의 욕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녀들의 형상을 주조하였는가, 그렇다면 배도·선화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주생의 어떠한 내면적 갈등을 함의하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7] 이에 본고에서는 배도와 선화라는 대상에 반영된 주생의 욕망과 그 갈등 양상을 살핌으로써, 의사 몽유록으로서 <주생전>의 서사가 지닌 함의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2. 억압된 현실의 욕망으로 주조된 배도와 선화의 형상

본격적인 서사 분석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의사 몽유록'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논할 필요가 있겠다. 의사 몽유록 개념을 제시한 박일용의 경우 <주생전>이 의사 몽유록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전 시대의 전기소설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 전제로 전기소설이 기이(奇異)한 일을 전하는 소설 양식이라고 보고, 소설 속 기이로 제시되는 귀신, 환생, 변신, 이계 방문 등과 같은 초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모티프들은 현실적 갈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고 본다.[8] 그러한 시각에서 그

7) 박일용은 <주생전>의 핵심 서사를 의사 몽유록적 측면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지만, 그 서사 속 갈등의 양상은 주생, 배도, 선화라는 각각의 중심인물이 지닌 욕망이 복합적으로 투사된 양상이라 보고 있다(박일용, 앞의 논문, 139~166쪽). 크게 공감할 만한 견해이나, <주생전>을 의사 몽유록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 전체 서사를 몽유 주체인 주생의 욕망이 투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리라 본다. 물론 '의사 몽유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생의 체험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생이 그와 같은 체험을 일종의 환상체험으로서 재구성하여 액자 밖의 작가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 체험담 속의 사건과 배도·선화의 존재 또한 실제 경험된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주생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환상의 차원에서 형상화 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www.kci.go.kr

가 간혹 전기소설과 몽유록을 별개의 것으로 논하는 연구자들과 달리 전기소설을 몽유록을 포함한 소설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실 전기소설이란 중국 당(唐) 대에 성립된 문어체 단편소설 양식으로서 초현실적 모티프를 지닌 소설 전반을 의미한다.[9] 그러므로 전기소설이란 개념 자체에 몽유록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옳다. 다만 여타의 전기소설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몽유록의 자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꿈속이라는 서사적 배경', '그 속에서의 비일상적 체험'이 될 것이다.

여타 전기소설을 대표하는 '명혼(冥婚)' 모티프와 비교하자면, 명혼 모티프에서는 '현실 속에 있는 주인공'이, '기이한 대상을 만남'으로써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그처럼 서사적 배경이 현실로 전제된다는 점은, 서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만나는 대상, 경험하는 사건 모두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몽유록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다. 몽유록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좀 더 수월하게 충족되는 양상을 보이고, 명혼 소설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좌절되는 경향이 강한 이유는 아마도 기이한 체험의 배경 자체가 몽유록에서는 꿈속의 세계로, 명혼 소설에서는 현실로 설정된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10]

그러한 점에서 '의사 몽유록'이라는 개념이 제안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주생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비록 현실적인 시공간과 인물을 상정하고 있으나, 주생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이 '취향에서의 환상'임을 거듭 강조하며, 그것이 결코 현실적인 일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하기에 서

8) 박일용(2013), 앞의 논문, 143쪽 각주 6에 전기소설의 개념에 대한 그의 견해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9) 소재영 외, 한국고소설학회 편,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271쪽.

10) 물론 명혼 소설에서도 만남의 공간이 지닌 비현실성이 지적되고는 한다. 그러나 작품 속 세계에서 주인공은 보통 자신의 기이한 체험이 실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므로, 주인공이 각몽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분명한 꿈으로 인식하는 몽유록과 결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사적 배경과 사건 모두가 초현실성을 띠는 몽유록에 가까운 것으로 주생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잠자리에 들어 꾸는 진짜 꿈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주생 스스로의 억압된 욕망이 빚어낸 백일몽과 같기에 완전한 몽유록이 아닌 현실 속의 주체가 경험한 '꿈같은 환상'을 의미하는 '의사 몽유록'으로 개념화 될 수 있겠다.

주생의 경험을 '꿈같은 환상'이라 표현하였지만, 그렇다 하여 실제로 주생이 헛것을 보고 듣거나 경험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주생의 환상은 '백일몽'과 같은 것으로서 전당과 호주에서의 사건은 이야기 주체인 '주생의 욕망이 구현된 상상적 허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주생전>은 주생이 그의 욕망으로 빚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내화(內話)로, 작가와 주생이 만난 실제의 이야기가 외화(外話)로 액자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꿈과 같은 환상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러한 환상은 현실 속 주체에 의한 것이기에, 강한 현실의 충격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 몽유록으로서 <주생전>의 서사가 주생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에 연유한다. 이러한 <주생전>의 비극성은 현실에서 소외된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통해 그의 욕망을 성취하는 듯 보이다가 이내 좌절하고 마는 이전 시대 전기소설의 양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11]

억눌린 욕망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허구적 상상, 백일몽적 환상도 밤에 꾸는 꿈과 다르지 않음을 고려하면, 의사 몽유록으로서 <주생전>의 서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꿈의 맥락을 따를 필요가 있다. 프로이

11) 이는 그 하위 갈래인 몽유록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었다. 몽유록의 주인공은 꿈속의 체험을 통해 그의 억눌린 욕망을 마음껏 성취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각몽의 과정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자각하며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꿈속에서만은 마음껏 욕망을 펼쳐낸다는 점에서 좀 더 소망충족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현실적 좌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트(S. Freud)에 의하면 '꿈의 이미지'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주체의 욕망이 가장된 형상으로 응결된 것으로서, 꿈속의 형상이 나타내는 억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와 같은 꿈을 빚어낸 주체의 내면 문제를 확인하는 길이 된다.[12] 이는 곧 주체의 꿈을 형성하는 주요 형상들이야말로 그의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는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에 <주생전>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배도·선화와의 만남을 의사 몽유 공간에서 이루어진 주생의 환상 체험에 가까운 것이라 전제한다면, 몽유 주체인 주생의 억압된 현실 욕망이 배도와 선화라는 환상 체험의 대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서사 이해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의사 몽유록 개념을 제안한 박일용의 경우에는 주생과 선화, 배도의 만남을 환상에 가까운 허구로 보면서도, 선화와 배도가 각기 실제 인물로서 각자의 욕망을 따라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환상 속의 대상을 실제 인물처럼 여기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주생의 체험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며, 주생의 실제 체험이 환상적으로 재구성되어 발화된 것으로 여겼기에 그와 같은 방향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재화(再話)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허구적으로 재구성될 때에는 그 사건과 인물 모두가 실제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특히나 허구적 상상의 주체인 주생 스스로 그것을 '환상'일 뿐인 것으로 자평함에야, 만약 전당과 호주에서의 체험, 그곳에서 만난 선화와 배도가 본디 실제의 인물이라 해도 그녀들과의 인연이 주생의 백일몽으로 재화되었다면 그녀들 또한 주생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 허구로 형상화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주생의 욕망에 의해 다시 주조된 선화와 배도의 형상, 그녀들의 욕망과 갈등 모두가 주생의 내면에서 빚어진 것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세 남녀의 갈등과 비극 또한 외부적 실제 사건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주생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3, 134~175쪽 참조.

www.kci.go.kr

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내적 갈등의 양상을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먼저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으로의 이동 전 현실의 공간 속에 있었던 주생의 서사를 확인함으로써, 몽유 주체인 주생을 꿈같은 환상 체험으로 견인하였던 정신적 필요, 현실 속 주생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주생은 전당에 세거(世居)하였던 사족(士族)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촉주(蜀州)의 별가에 제수되며 촉주로 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시문에 능했는데, 이로써 열여덟 살에 태학(太學)에 입성하여 주위의 추앙을 받았다.

> 주생의 이름은 회, 자는 직경, 호는 매천이었다. 전당에 세거하였으나, 부친이 촉주의 별가가 되어 그의 가족은 촉주에 가 살았다. 주생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시문에 능하여 열여덟 살에 태학생이 되었다. 이에 동년배의 추앙을 받게 되었으며 그 역시 깊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13]

서술된 바를 따르면, 주생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서 동년배의 추앙을 받으며 그 스스로도 자신의 남다른 능력에 자부심을 지닌 인물이었다. 열여덟에 명조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실제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말한다. 명대의 태학은 국자감(國子監)으로 불렸으며, 북경과 남경 두 곳에 설치되어 전국에서 생원(生員)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 중 특별히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 교육하였다. 생원이란 지방의 부(部)·현(縣)에서 치르는 세시(歲試)에 합격한 자를 지칭하며, 세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면 평민도 사족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고 향시(鄕試)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국자감에서는 지방의 생원 중 특별히 뛰어난 이들을 공생(貢生)의 자격으로 들였고, 향시에 합격한 거

13) 周生, 名繪, 字直卿, 號梅川. 世居錢塘, 父爲蜀州別駕, 仍家于蜀. 生少時, 聰銳能詩, 年十八爲太學生, 爲儕輩所推仰, 生亦自負不淺. <文璇奎 本>

www.kci.go.kr

인(巨人)들 중 뛰어난 이들을 감생(監生)의 자격으로 들였다. 그 외 전대 문무 관원의 자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황제가 특별히 입학을 허락하는 경우나 일정량의 재물을 바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통의 경우는 생원과 거인 중 우수한 이를 지방의 학정(學正)이 천거하는 방식이었다. 추천받는 이들은 세시나 향시에 합격하고 10여년이 지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지방의 연로한 생원과 거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에 국자감의 입학 연령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14] 그렇다면 주생은 적어도 어린 나이에 세시 혹은 향시를 치러 합격하였고, 연배를 고려치 않고 천거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당당히 태학에 입학하게 된 주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였을지, 그러한 성취를 이룬 자신에 대한 주생 스스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태학에 입성한 주생은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수년간 태학에 다니면서도 연이은 과거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 태학에 있는 몇 년 동안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이에 탄식하며 가로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미미한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깃든 것과 같다. 그런데 어찌 공명에 구속되고 진흙에 빠져 나의 일생을 보낼 것인가?"하고는, 스스로 옳다 여겨 과거에 대한 뜻을 끊어내기에 이르렀다. 상자 속의 은 백천으로 그 반은 배를 사서 강호를 왕래하고 남은 반으로 잡화 거래를 하여 자급하고도 남았으니, 아침에는 오(吳)에 저녁이면 초(楚)로, 마음에 따라 오갔다.[15]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겪은 주생은 공명에 얽매어 사는 일이 공허하다 말

14) 진정 저, 김효민 역,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311~317쪽 참조.

15) 在太學數年, 連擧不第. 乃喟然嘆曰 "人生世間, 如微塵棲弱草耳. 胡乃爲名韁所係, 汨汨塵土中, 以送吾生乎." 自是, 遂絶意科擧之業. 倒篋中有錢百千, 以其半買舟, 來往江湖, 以其半市雜貨, 取贏以自給, 朝吳暮楚, 維意所適. <文璇奎 本>

www.kci.go.kr

하면서 배로 장사를 하며 물길 따라 세상을 떠돌기 시작한다. 얼핏 세상사에 초연하여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법하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좌절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 심리에 의한 것이라 봄이 옳다. 자신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입신양명의 꿈을 무의식으로 밀쳐버리면서 의식적으로는 얽매임 없는 자유를 구가하노라 자위(自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생이 취향(醉鄕)인 전당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 머물렀던 곳이 고래로 충신들의 방축지(放逐地)로 표상되었던 악양(岳陽)이라는 점이다.[16] 이에 악양은 현실 속의 주생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공간이면서, 이후로 진입하게 될 환상의 공간인 전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다. 주생의 무의식 속에서는 초회왕(楚懷王)에게 버려져 악양성 멱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진 굴원(屈原)처럼, 부당하게 인정받지 못하여 원치 않게 입신양명의 꿈을 접어야 한 것으로 스스로의 처지를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현실에 대해 원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인용에 언급된 주생의 탄식에서도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공명에 구속되어 계속 과거지업(科擧之業)에 붙들려 있는 것을 '진흙에 빠져 있는 것(汨汨塵土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입신양명의 길에 결부된 '더러움', 즉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생이 자신의 과거 실패를 '부조리의 결과'로 인식하였던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원할 특별한 배경이 없었던 점이다. 작품에는 주생의 태학 입성 후 그의 가족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후 주생이 의지할 곳 없이 세상을 떠도는 점이나, 호주에서는 먼 외척인 장씨의 중재로 선화에게 청혼하였던 점을 보면 주생이 장성하였을 무렵 그의 부모와는 이미 사별한 상황이었으며, 일가는 물

16) 박일용, <주생전>의 패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적 의미」, 『문학치료 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86~194쪽 참조.

www.kci.go.kr

론 가까운 인척마저 지리멸렬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배경을 지닌 이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상황 속에서, 더 높은 능력을 지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한 배경에 있다고 여긴 주생의 내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생의 의사 몽유공간이 '전당'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한 공론(空論)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당은 주생의 고향으로서 그의 일족이 대대로 세거하였던 지역이다. 이에 주생은 그나마 든든한 자기 배경을 가졌던 공간으로서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더하여 그곳에서 주생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추앙받았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당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떠돌고 있는 주생에게, 무의식적으로 그가 의지할 배경과 뭇 사람의 인정을 얻을 법한 이상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생이 전당에서의 환상 체험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욕망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전당에서의 어린 시절처럼 주위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망', 궁극적으로는 좌절된 꿈의 성취, 즉 입신양명을 위한 '배경에의 욕망'일 것이다. 이에 주생은 현실 속에서 억압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인 전당을 의사 몽유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구체적인 욕망의 대상이 될 배도와 선화를 등장시킨다.

주생이 전당에 이르러 먼저 조우한 인물이 배도였다는 것은, 언급한 두 층위의 욕망 중 '인정의 욕망'이 보다 일차원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배도는 전당에 남은 유일한 친구로서 과거의 주생을 알고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다. 이에 그녀는 주생의 천재성을 이미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그가 지닌 인정의 욕망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대상일 것이다. 더하여 배도는 재주와 용모가 빼어나 전당에서는 견줄 이가 없는 인물이었다.[17] 그처럼 뛰어난 배도이기에 그녀로부터 재능과 인품을 인정받는 것은 여타의 칭송을

www.kci.go.kr

얻는 것보다 더한 성취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도는 본디 호족 출신임에도 기생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주생보다 더한 질곡을 겪고 있는 인물이었다.[18] 이에 주생이 양가 출신의 기생인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본인의 격을 심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여느 양갓집 여식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손쉬운 일이었다. 그에 더해 그녀 스스로 재능 있는 선비와의 관계를 통한 신분 회복을 희구함에야.[19]

주생은 이처럼 스스로의 인정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킬만한 대상이 되면서도 자신과의 관계 맺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닌 배도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이에 배도의 인정을 통해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주생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도 선화를 마주한 순간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선화의 존재는 주생의 어떠한 욕망이 반영되어 있기에 '인정의 욕망'의 대상이었던 배도의 존재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처음 선화의 모습을 목격한 주생의 표현을 통해 그 내막을 짐작할 만하다.

> 부인은 자색의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 방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에 가까웠으나 지긋이 돌아볼 때에는 고운 모습이 남아 맵시가 있었다. 나이

17) 배도는 재주와 용모가 전당에서 가장 뛰어나 사람들이 '배랑'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以才色獨步於錢塘, 人號之爲俳娘. <文璇奎 本>

18) "첩의 조상은 본래 호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모는 천주(泉州)의 시박사(市舶司) 벼슬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 서인으로 폐출되었고 그로부터 점점 가난해져 떨치고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첩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남의 손에 길러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妾先世乃豪族也. 祖某提擧泉州市舶司, 因有罪廢爲庶人, 自此貧困, 不能振起. 妾早失父母, 見養于人以至于今. <文璇奎 本>

19) "바라옵건대 후일 낭군이 입신하여 일찍 요로에 올라 제 이름을 기적에서 빼내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면 천첩의 원은 다할 것입니다."
望郎君他日立身, 早登要路, 拔妾於妓簿之中, 使不忝先人之名, 則賤妾之願畢矣. <文璇奎 本>

www.kci.go.kr

> 가 십사오 세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같은 머릿결에 푸른빛이 맺혀 있고 비취와 같이 고운 뺨에 붉은 빛이 어려 있었다. 맑은 눈으로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추인 가을 햇살 같았으며,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예쁜 웃음은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좌우의 그녀들 사이에 앉은 배도는 봉황에 섞인 갈까마귀나 부엉이 같을 뿐만 아니라, 구슬에 섞인 모래나 조약돌 같았다.[20]

인용된 내용을 보면 선화의 아름다운 자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일견 주생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든 듯 여길 법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선화의 아름다움이 그의 모친인 승상 부인과 연계되어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비견한 배도는 선화만이 아닌 승상 부인과도 대조를 이루며 '봉황에 섞인 갈까마귀', '구슬에 섞인 모래'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주생이 선화에게 빠져든 것이 단순히 선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가 아니라, 승상 부인으로 표상되는 선화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선화의 이미지를 그려낸 주생의 욕망이란, 선화가 지닌 지위에 관한 것, 즉 그의 입신양명을 지원해 줄 '배경에의 욕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주생의 눈에 비쳐 마치 선계(仙界)의 여인인 듯 표현되고 있는 선화의 아름다움은, 실상 그가 간절히 바랐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욕망이 대상화된 것이다.[21]

---

20) 夫人衣紫羅衫, 倚白玉案而坐, 年近五十, 而從容顧眄, 綽有餘妍. 有少女, 年可十四五, 坐于夫人之側, 雲鬢結綠, 翠臉凝紅, 明眸斜眄, 若流波之映秋日, 巧笑生倩, 若春花之含曉露. 挑坐于其間, 不啻若鴉鶻之於鳳凰, 砂礫之於珠璣也. <文璇奎 本>

21) 물론 선화에 대한 주생의 욕망을 단순히 선화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331~332쪽; 정규식, <주생전>의 인물 연구: 상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20~21쪽).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전당에서 용모와 재주가 가장 뛰어났다'고 표현되는 배도에 비교하여 단순히 선화의 아름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고 보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주생이 선화에게 더 큰 욕망을 느끼게 되는 맥락은 용모와 재주 외에 배도가 가지지 못한 신분, 즉 사회적 배경이 선화

www.kci.go.kr

이는 담을 넘어 선화의 방으로 침입하기 전 “일이 이루어지면 곧 경(卿)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죽을 뿐이다.”[22]라고 했던 주생의 독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3] 경(卿)이 된다는 것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됨을 의미하므로, 주생이 선화를 취함으로써 그녀의 배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좌절되었던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떠돌이 선비일 뿐인 주생이 고귀한 신분의 선화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의사 몽유 주체인 주생은 그녀를 낭만적 사랑을 희구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그와 같은 면모는 그녀가 지은 <풍입송사(風入訟詞)>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 시에는 주렴으로 가려진 방안에서 좋은 시절을 홀로 보내고 있는 선화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으며, 마지막 구절에는 그와 같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다. 이는 곧 그녀가 자신과 함께 꿈같은 사랑을 함께할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4] 선

에게 있었고,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주생이 의식한 결과로 이해함이 온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일용 또한 “배도는 전당에서 독보적인 미색과 재예를 가진 기생으로서 주생 스스로 기생으로서 황제의 후궁으로 발탁되었던 두추랑(杜秋娘)에 견주던 여인이다. 그러한 배도를 봉황 옆의 까마귀나 올빼미뿐 만 아니라 구슬에 섞인 자갈 같았다고 한 걸 보면 주생이 선화에게 느꼈다는 충동이 단순히 미모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와 연관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박일용, <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408쪽).

22) “事成則爲卿, 不成則烹可也.” <花夢集 本>

23) 이 구절을 주생의 신분 상승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지연숙, 엄태식은 해당 구절이 『사기(史記)』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나오는 ‘석걸(石乞)’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단지 위험한 상황을 표현하는 뜻일 뿐이라 하였다(지연숙, 앞의 논문, 333쪽; 엄태식, 앞의 논문, 99쪽). 그러나 <오자서열전>의 내용을 상고하여도 석걸이 백공(白公)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이유 또한 그의 현달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석걸의 말을 인용한 주생의 독백을 그의 신분 상승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다.

24) 정규식(2009), 앞의 논문, 21~22쪽 참조.

www.kci.go.kr

화가 사랑을 꿈꾸는 소녀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주생은 그녀에게 다가갈 길을 얻게 된다. 그녀가 갈구하는 낭만적 사랑을 줌으로써 그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자신이 갖추지 못한 바 좌절의 이유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선화는 주생의 '배경에의 욕망'을 해소하기에 최적화된 대상으로 주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욕망의 충돌로 인한 내면 갈등의 비극적 형상화

재미있는 점은 주생의 '인정의 욕망'을 대상화한 배도가, 그의 '배경에의 욕망'을 대상화한 선화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주생은 승상 댁 연회의 가객으로 초빙된 배도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선화를 보게 되어 사랑에 빠진다. 그에 더하여 배도는 선화가 지은 <풍입송사>를 주생에게 들려주어 낭만적 사랑을 희구하는 선화의 욕망을 주생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선화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그녀가 주생이 승상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국영의 스승 자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생각하면 선화와 주생의 관계 맺음에 있어 배도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25]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배도는 단지 주생과 선화의 만남을 매개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26]

---

25) 박일용, <주생전>의 패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적 의미」, 『문학치료 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71~172쪽 참조.

26) 김양진, <주생전>의 갈등 구조」, 『새얼어문논집』 12, 새얼어문학회, 1999, 314쪽; 조광국, <주생전>과 16세기말 소외양반의 의식변화와 기녀의 자의식표출의 시대적 의미」,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141~146쪽; 윤세순,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삽입시가의 존재양상과 기능」,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168; 정민, 앞의 논문, 108쪽;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8~41쪽; 황혜진, 애정과 열의 갈등」,

www.kci.go.kr

그러나 주생을 의사 몽유 주체로 보았을 때에는 배도의 매개자적 역할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의 주생은 애초 자신에게 아무런 인정의 욕망이나 입신양명의 욕망이 없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양에서 술에 취해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으로 진입한 주생은 진실한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 먼저 주생이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한 것은 배도였다.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적극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배도의 형상을 그려낸 그의 욕망은 현실의 실패로 인해 억눌러 왔던 인정의 욕망이었다. 이에 배도는 주생이 억눌러온 인정의 욕망을 자각하도록 하는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식적으로 억눌러왔던 인정의 욕망을 직시하게 된 주생은 그와 같은 욕망의 이유가 되는 궁극적 욕망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된다. 일차적인 인정의 욕망에 대하여 자각한 후에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입신양명을 위한 배경에의 욕망에 천착하게 되는 과정이 배도에서 선화로 이어지는 애욕의 향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배도에 반영된 인정의 욕망은 단순히 선화에 반영된 배경에의 욕망에 진입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양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양립할 수는 없는 복합적 관계를 지닌 것이었다. 인정의 욕망은 주생 스스로의 재능과 인품을 인정받는 것에 관계된 것이다. 이는 스스로 충분한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음에도 한미한 배경으로 인해 급제에 실패하였다고 여겼던 주생이 자신의 진실한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욕망이다. 그러나 배경을 통한 입신양명은 주생 스스로 부조리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배경을 통해서만 입신양명을 이룰 수 있는 세태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겼기에 그러한 현실을 '진흙에 빠진 삶'으로 여기며 떠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내면에서는 그와 같은 배경을 지니지 못한 것을

『애정 소설과 가치 교육』, 지식과 교양, 2012, 297~308쪽 등이 있다.

www.kci.go.kr

한탄하며 자신 또한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싶은 욕망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두 욕망은 양립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화의 관계가 갈등을 형성하고 결국은 비극으로 귀결되는 맥락은 이처럼 배도와 선화의 이미지를 그려낸 주생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배도가 아무런 걱정 없이 주생의 앞에서 선화의 용모와 재주를 칭찬하고[27], 그녀가 지은 <풍입송사>를 소개하거나 주생이 국영의 스승으로 승상 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생의 인품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주생이 지닌 인정의 욕망을 반영한 인물로서 그의 재능과 인품을 숭앙하는 존재로 주조되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주생이 선화, 즉 배경에의 욕망에 천착하면서 배도는 도외시 된다. 주생은 담을 넘어 선화의 방에 들어간 이후로 그녀와의 밀회에 집중하며 배도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정당하게 재능과 인품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배경을 얻어 손쉽게 입신양명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힘을 잃어가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선화가 주생에게

---

27) “선화의 자는 방경이고, 나이는 열다섯입니다. 자모가 우아하고 수려하여 거의 속세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곡을 잘 지으며 자수에도 기교가 있어 천첩이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仙花字芳卿, 年纔三五, 姿貌雅麗, 殆非塵世間人. 又工詞曲, 巧刺繡, 非賤妾所敢望也.” <文璇奎 本>

28) 이에 대하여 박일용은 “여기서 배도가 주생이나 선화에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전해준다는 것은 설혹 그들이 그러한 정보를 갖는다 할지라도 배도는 그들이 남녀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걸 뜻한다. 배도가 주생과 선화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야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통념을 벗어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논한 바 있다(박일용, <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411쪽). 그러나 배도라는 인물이 주생의 의사 몽유록적 환상 체험을 통해 주생에 의해 주조된 인물이라 볼 때에는 주생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건넨 배도의 연시(戀詩)에 먹을 칠하고 주생과 자신의 관계를 암시하는 시를 적어놓는 대목에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배도와의 관계, 즉 인정의 욕망은 무화되고 선화로 대변되는 배경에의 욕망에 기울어가는 주생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배도는 선화와의 부정한 관계를 승상 부인에게 고변하겠노라 위협하며 주생을 자신에게로 끌어가는데, 이는 배경에의 욕망에 기울어가던 주생이 다시금 인정에의 욕망을 의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입신양명의 방편을 추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역시 정명(正明)한 방향을 따라 순수하게 자신의 재능과 인품을 인정받는 것이 옳은가 하는 내면적 갈등이 주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도의 집에서도 내내 선화만을 생각하는 주생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미 부정에 가까운 배경에의 욕망에 마음이 기울었으면서도, 일종의 자기 검열에 의해 정명한 인정의 욕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9]

그러다가 결국 주생은 배도의 죽음을 그려내면서 자기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던 두 욕망 중 배경에의 욕망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죽음을 마주한 배도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선화와의 관계를 축원하게 하는 것은, 그가 지닌 인정의 욕망이 결국은 입신양명의 꿈에 종속된 것임을 인정하고, 입신양명의 첩경인 사회적 배경에 대한 욕망에 완전하게 몰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0]

---

29) 이와 같은 정황은 "담을 넘어 상종하고 구멍을 뚫어 서로를 엿보는 것이 어찌 군자의 행할 바인가(踰墻相從, 鑽穴相窺, 豈君子所可爲哉)!" 라며 주생을 힐난하는 배도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주생은 선화와의 관계가 윤리를 일탈한 부정에 가까운 것임을 배도의 존재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30) 이처럼 선화·배도와의 중첩된 관계를 온전히 주생 내면의 갈등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의사 몽유록 구조를 제안한 박일용 또한 선화와 배도를 실제 인물로 조명하면서 세 주인공의 욕망이 충돌함으로써 <주생전>의 비극을 낳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생의 체험을 온전히 '주생의 환상'으로 볼 때에는 배도와 선화의 이미지로 대상화된 그의 '인정의 욕망', '배경에의 욕망'이 상호

www.kci.go.kr

문제는 주생이 디자인한 전당에서의 꿈이 상호 충돌하는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투사하기 위한 무대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일차적인 인정의 욕망을 소거하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한 배경에의 욕망에 접근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31] 이에 주생은 전당에서의 꿈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그의 배경에의 욕망을 투사할 꿈을 다시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주생이 다시금 세상을 떠돌다가 호주에 이르러 승상 부인과 면식이 있는 거부이자 먼 외척인 장씨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선화에게 청혼을 넣게 되는 것은 새로이 설정된 의사 몽유 공간에서 그가 지닌 배경에의 욕망을 온전히 투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에서의 서사가 오롯이 주생의 환상일 뿐이라는 것은 혼약의 매개자인 장씨의 존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애초에 그와 같은 의지처가 있었다면 왜 주생은 세상을 떠돌아야 했으며, 스스로 천지간에 의탁할 곳이 없다고 한탄하였던가.[32] 또한 선화와 관계 맺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담을 넘어 강제로 선화를 취하고자 했던 주생에게, 알고 보니 그와 같은 중매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33] 또한 진정으로 그가 승상 댁의 혼인 허락을 얻은 상태였으며 거부인 장씨와 같은 친척에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1) "기실 주생과 선화의 '야합적 만남'은 배도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배도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연출하는 매개자일 따름이다. <새끼서 발> 유형의 설화에서 여러 중간적 교환물을 거쳐 주인공이 세끼 서 발로 색시를 얻는 것처럼, <주생전> 역시 주생과 배도의 만남을 설정하여 주생과 선화의 만남이 가능한 것처럼 그려낸 뒤, 끝내는 배도라는 매개항을 제거하여 한바탕 꿈을 꾸었다 깬 것과 같은 효과를 연출한 것이다."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1쪽.

32) 이와 같은 점은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51~152쪽을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33) 이정원의 연구에서도 주생과 선화가 친척 노인의 중매로 쉽게 결연하게 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라 지적되었다. 이정원,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9쪽.

www.kci.go.kr

의탁하고 있었다면, 조선 파병군의 종군서기로 하릴없이 끌려가야만 했을까. 정말로 그와 같이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면 그들의 힘을 통해서라도 그처럼 무력하게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씨는 한미한 배경의 주생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배경을 지닌 선화와 연결되기 위해 가공된 인물이라 보아야 한다. 높은 가문을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배경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생의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본다.

결국 주생은 조선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꿈속의 세계를 떠나 지독한 현실 속으로 다시 복귀해야만 했다. 이는 현실의 강한 자극을 통해 꿈을 깨고 다시금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는 맥락이다. 조선으로 끌려와 현실을 자각한 주생은 애초 “진흙에 빠져 살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며 세상을 주유하였던 자신이 실제로는 스스로의 실패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세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부조리한 세태에 야합해서라도 입신양명하여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작가를 만나 전당과 호주에서의 의사 몽유 체험을 전하였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스스로의 욕망을 자각함에서 비롯된 우울을 위로받고자 한 결과이다. 이에 작가는 그 내심을 읽고 “장부가 걱정할 바는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34]라고 화답하였던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현실성이 강화된 전기소설’이라는 <주생전> 특유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는 ‘의사 몽유록’ 개념을

34) 丈夫所憂, 功名未就耳 <花夢集 本>

www.kci.go.kr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서사 속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과 호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배도·선화와의 만남도 모두 현실에서 억압된 주생의 욕망이 꿈의 환상을 통해 투사된 것으로 보고, 거기 투사된 주생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사 몽유 공간인 전당은 몽유 주체인 주생이 지닌 인정의 욕망, 입신양명을 위한 배경에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이며, 구체적으로 배도와 선화의 형상을 통해 주생의 욕망이 그려지고 있음을 밝혔다. 배도는 주생의 재능과 인품을 긍정 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망으로 주조된 인물이며, 선화는 주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입신양명을 위해 필요하다 여긴 배경에의 욕망이 주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욕망은 인접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에 주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욕망의 갈등에 의해,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화의 관계가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주생전>의 서사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배도와 선화가 주생의 욕망에 의해 가공된 환상적 인물이며 양자에 결부된 주생 내면의 상충적 욕망이 세 인물의 갈등과 비극적 결말로 형상화되었다는 견해는 일찍이 논의된 바 없다. 이는 의사 몽유록적 관점에서 주생의 체험을 온전히 백일몽적 환상, 허구적 상상으로 보고, 그가 만난 인물과 경험한 사건 모두를 그의 욕망이 반영된 형상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주생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길로서 이 연구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디 꿈의 서사란 그 나름으로 일정한 논리를 지니면서도 완전히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보일 수는 없다. 이에 <주생전>의 서사는 논리적 파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논리의 빈틈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천차만별의 해석이 제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 몽유록적 측면에서 <주생전>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일목요

www.kci.go.kr

연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의사 몽유록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일체의 서사를 주생의 욕망에 입각하여 재조명한 첫 성과로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간호윤,『쥬싱뎐·위싱젼의 자료와 해석』, 박이정, 2008, 1~248쪽.
김경미,「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14~242쪽.
김문희,「애정전기소설의 문체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07쪽.
김수연,「명대 주변부 문인의 삶과 <주생전>」,『영주어문』40, 영주어문학회, 2018, 89~114쪽.
김양진,「<주생전>의 갈등 구조」,『새얼어문논집』12, 새얼어문학회, 1999, 185~208쪽.
김희경,「전기소설의 측면에서 본 주생전 연구」,『연세어문학』27, 연세대학교, 1995, 1~23쪽.
문범두,「주생전 연구」,『영남어문학』23, 영남어문학회, 1993, 151~179쪽.
박은정,「인물분석을 통해서 본 주생전의 욕망 연구」,『시학과언어학』31, 시학과 언어학회, 2015, 59~83쪽.
박일용,「주생전의 사실적 경향성과 소설사적 위상」,『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31~132쪽.
박일용,「<주생전>의 패러디로서 <위생전>의 문학적 의미」,『문학치료 연구』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61~203쪽.
박일용,「<주생전>의 환상성과 남·녀 주인공의 욕망」,『고전문학과 교육』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32쪽.
박일용,「<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139~166쪽.
박희병『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256쪽.
소인호, <주생전> 이본의 존재 양태와 소설사적 의미」,『고소설연구』1, 한국고소설학회, 2001, 177~200쪽.
소재영 외, 한국고소설학회 편,『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1~406쪽.
신재홍,「주생전 연구사」,『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01~122쪽.
신태수,「주생전의 창작 배경」,『한국언어문학』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109~150쪽.
신태수,「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권필의 <주

www.kci.go.kr

생전>에 형상화된 중국 남방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5~37쪽.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23쪽.
엄태식, 「애정 전기소설의 창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24쪽.
엄태웅, 「17세기 전기 소설에 나타난 남녀 관계의 변모 양상-<위생전>,<주생전>의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133~162쪽.
오세옥, 「권필 문학에 나타난 갈등 극복의 구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119쪽.
윤경희, 「<주생전>의 문체론적 접근」,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23~159쪽.
윤세순,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삽입시가의 존재양상과 기능」,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165~194쪽.
윤승준, 「취향과 현실 일탈의 꿈-<주생전>의 문학적 감염장치-」, 『동양학』 3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1, 103~124쪽.
이정원,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87쪽.
임형택, 「전기소설의 애정 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22,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92, 25~47쪽.
정규식, 「<주생전>의 인물 연구-상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5~37쪽.
정 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문학적 성격」, 『한양어문연구』 9, 한양어문학회, 1991, 81~126쪽.
조광국, <주생전>과 16세기 말 소외 양반의 의식 변화와 기녀의 자의식 표출의 시대적 의미」, 『고소설 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137~163쪽.
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317~337쪽.
진정 저, 김효민 역,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1~368쪽.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35쪽.

www.kci.go.kr

황혜진, 「애정과 열의 갈등」, 『애정 소설과 가치 교육』, 지식과 교양, 2012, 280~315쪽.
황혜진, 「신경증에 걸린 고전소설의 인물들 : <주생전>의 배도, <운영전>의 안평대군과 유영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39~78쪽.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Jusaengjeon" seen through Perspective of the Dreamlike-story

: Jusaeng's Desire being reflected in Image of Baedo and Sunhwa

Cho, Hong-youn

"Jusaengjeon" is a romance that represents historical changes in litera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discussed by many researchers. However, in each study, different opinions have been drawn over all areas related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interpretations of the work. Therefore, the concept of dreamlike-story was proposed by a former researcher to understand "Jusaengjeon" clearly as a romance with enhanced re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arrative of "Jusaengjeon" by actively applying the concept of dreamlike-story. In this regard, Jeondang and Hoju, the dreamlike spaces in narrative, and the encounter with Baedo and Sunhwa held in it, were all considered as projection of Jusaeng's desire suppressed in rea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rrative from that point of view, I revealed that Jeondang is a space for resolving jusaeng's desire to be recognized and to have a background for goodwill, while the former desire is reflected in Baedo and the latter in Sunhwa. However, the two desires were forced to collide with each other even though they were adjacent. Accordingly, Jusaeng, Baedo, and Sunhwa were forced to conflict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desires that occurred within Jusaeng's inner side, and thus the narrative of "Jusaengjeon" was bound to be a tragedy.

Key Words Jusaengjeon, Dreamlike-story, Dream, Fantasy, Desire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

www.kci.go.kr

www.kci.go.kr